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올해 2분기 미 소비자 지출, 가장 낮은 속도로 증가
- Reuters: 미 GDP 2분기 연율 2.1% 변동없고, 주간 실업 청구 증가
- CNBC: 미네아폴리스 은행총재, “금리기 인플레이 통제 가능할 충분한 수준 인지 불확실”
- WSJ: 의회의 교착상태로 섣다운 위기
- Bloomberg: 미국인 저축규모, 생각보다 1조 1천억불 적다

[미국 금융]

- The economist: 금융 시장에 우려가 왜 더 커지는가?
- JP 모건 보고서: 지정학적인 중국 – 꼬리 위험(Tail Risks)의 관리는 가능하나 여전히 투자는 약세 심리

[오일]

- WSJ: 유가 100불에 근접했지만, 세일 기업들 보고만 있어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물류기업들, 연휴에도 고용에 신중해
- CNBC: 중국 반도체 장비 기업들, 상반기 매출 급증
- CNN Business: Pelton 주가, Lululemon과의 파트너십 이후 상승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US Consumer Spending Rose at Weakest Pace in a Year Last Quarter

올해 2분기 미 소비자 지출, 가장 낮은 속도로 증가

- 오늘 목요일 연방정부 발표에 따르면 2분기 소비 지출 증가가 그 전 분기의 절반 속도였다. 미국 경제 주요 동력인 개인소비는 올해 4월 5월 6월에 연율 0.8% 증가해 이 전 분기의 1.7%에 거의 반정도로 줄어들었다.
- 2분기 소비 지출이 줄었지만 현재까지 계속 회복력을 보이고 있어 연준과 이코노미스트들은 단기 성장에 대해 보다 낙관적인 입장이 보이고 있다.

Bloomberg 기사

Reuters: US Q2 GDP growth unrevised at 2.1%; weekly jobless claims edge higher

미 GDP 2분기 연율 2.1% 변동없고, 주간 실업 청구 증가

- 오늘 목요일 연방상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2분기에 미국 경제가 비교적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고 3분기에도 탄력적인 노동시장 때문에 모멘텀을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 2분기 GDP가 변동없이 연율 2.1%를 보였다. 이는 3번째 추정치이며 당초 월가의 추정치에서 변동이 없었다.
- 올해 1분기에는 2.2%로 상향 조정됐으며 작년 4분기는 2.0%였다.
- 한편 오늘 목요일 발표된 연방 노동부에 따르면 9월 23일 주간에 끝난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천건 늘어난 계절 조정치로 2만4천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청구 건수는 194,000~265,000건 범위의 아래쪽에 머물고 있다.

Reuters 기사

CNBC: Fed's Neel Kashkari isn't sure if interest rates are high enough to stop inflation

미네아폴리스 은행총재, “금리기 인플레이 통제 가능할 충분한 수준인지 불확실”

- 미네아폴리스 연방은행 총재인 Neel Kashkari는 CNBC와의 또다른 인터뷰에서 “연준이 인플레이를 통제할 정도로 금리를 충분히 인상했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그는 물가를 낮추기 위해 금리를 ‘의미있을 정도로 높게’ 인상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제안한 글을 쓰지 하루만에 CNBC와의 인터뷰에서 “경제를 긴축하지도 자극하지도 않는 금리인 이른바 중립 금리가 더 높아졌을 수 있다”고 밝혔다.

CNBC 기사

WSJ: Standoff in Congress Brings Government to Brink of Shutdown

의회 교착상태로 섰다운 위기

- 요지: 하원과 상원 제안은 지출, 우크라이나, 국경 안보 이슈로 큰 의견차
- 공화당 출신의 하원 의장 Kevin McCarthy는 이번 주말부터 부분적인 정부 섰다운 가능성이 높아지자 상원의 초당파적인 단기 자금 지원 법안을 거부하고 대신에 보수 의원들이 지지하는 하원 공화당안을 지지하고 있다.
- 많은 의원들은 9월 30일이 지나도 정부 자금 지원이 힘들어 연방 정부가 일부 폐쇄되어 연방 공무원과 군인 급여가 일시 보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상하원은 연간 자금 지원 법안 작업을 계속하는 와중에서도 임시방편으로 자체적인 제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상하원이 협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출 수준과 우크라이나 및 국경 안보에 대한 의견차이가 심한 상황이다.

WSJ 기사

Bloomberg: Americans Saved \$1.1 Trillion Less Than Previously Thought From 2017-2022

미국인 저축규모, 생각보다 1조 1천억불 적다

- 목요일날 발표된 미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 동안 미국인 가계가 생각했던 것보다 1조 1천억 달러 적게 저축했다.
- 연방 상무부 경제분석국(BEA)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가처분소득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 8.3% 감소했음을 밝혔으며, 이는 이전에 추정된 9.4%보다 떨어진 것이다.
- 이런 감소는 뮤추얼 펀드와 부동산 투자 신탁으로 부터의 개인 소득을 낮추는 회계 조정에 따른 것이다.
- 또한 현재 미국 가정의 재정 상태는 높은 유가와 대학생 학자금 대출 상환의 재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The Economist: Why fear is spreading in financial markets

금융 시장에 우려가 왜 더 커지는가?

- 요지: 투자자들은 고금리 라는 장기적인 현실에 직면하기 시작했다.
- 9월들어 S&P 지수는 크게 하락했다. 불안한 8월을 보낸후에 최근 수주동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 문제는 고금리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연준 이사들은 평균적으로 내년말까지 기준 금리(현재 5.25~5.50%)가 여전히 5%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장단기 국채 수익률도 상승했다.
- 당초 주식 시장은 채권 및 외환 시장에 비해 고금리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뒤늦게 수용한 편이었다.
-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에 너무 부풀어 있었다는 것이다.

The Economist 기사

JP 모건: China: Manageable tail risks, but bearish sentiment unlikely to fade

지정학적인 중국 – 꼬리 위험(Tail Risks)의 관리는 가능하나 여전히 투자는 약세 심리

- 중국에 대한 투자자 심리는 여전히 약세이지만, 특히 대만 관련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둘러싼 우발적인 갈등 우려는 크게 줄고 있다.

- 정치 분석가들은 중국을 ‘자국 중심의 방식’으로 당 중심의 민족주의를 통해 경제를 진작시키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 중국은 경착륙에 직면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의 목표는 경제적인 성장이 아닌, 경제적인 파워를 성취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큰 경기 부양책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포트폴리오 투자자들에 의한 중국 리스트 프리미엄 재평가는 주기적인 현상이 아닌, 구조적인 현상이다.
- 시장의 추측에도 불구하고 큰 위안화 평가 절하 가능성은 낮다.
- 공급망 체인의 다변화로 인해 라틴 아메리카는 물론 아세안과 인도에 혜택을 주고 있다.
- 다국적 기업들이 느끼는 점은, 그들이 공급망에서 중국을 대체 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중국이 핵심 광물과 희토류를 차단할 수 있다는 우려는 미국 국채 매각 우려보다 크다.
- 탈달러의 우려는 과장되긴 했지만 달러 아닌 통화를 미국의 잠재적인 규제에 대한 헤지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인센티브가 BRICS 국가에서 커지고 있다.
- 중국은 목표는 ‘베이징 컨센서스’를 구축하지만, 인도는 이와는 별개로 저소득 ‘글로벌 사우스’ 지역의 이익 증진을 위한 자체의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다.

JP 모건 보고서

[오일]

WSJ: Oil Is Near \$100. Shale Isn't Coming to the Rescue.

유가 100불에 근접했지만, 셰일 기업들 보고만 있어

- 미국의 유가가 어제 수요일 1여년 만에 최고치로 올랐다. 대부분의 셰일 오일 생산자들은 이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을 계획이다.
- 몇몇 분석가들은 유가가 1배럴당 100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미국의 셰일 기업들은 오일 시추를 서두르고 있지 않다. 이는 셰일 기업들이 시장에 원유 공급을 늘려 유가 상승을 완화시켰던 과거와는 달리, 누군가 원유 공급을 늘리거나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한 현재의 유가가 오른 상태로 유지될 것을 의미한다.
- 일부 오일 경영진은 대부분의 셰일 기업들이 유가를 높이 유지하면서 얻은 수익을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한다. 또한 이들 기업이 인플레이션과 높은 금리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WSJ: Logistics Companies Grow Cautious on Holiday Hiring**
물류기업들, 연휴에도 고용에 신중해

- 연휴를 맞이해 창고 작업자들과 배송직원을 고용하기 위한 경쟁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
- 물류 기업들과 주문 처리 업체들은 올해의 고용을 작년과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상품 판매가 저조한 성장을 보이면서, 이들 기업이 현재의 소매 경제가 불확실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 전자 상거래 물류 기업인 Rival의 경영 책임자 Laura Ritchey는 기업들이 연휴 동안에 상품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만약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지금 상황에 변화가 없거나, 공급망에서 더 많은 재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현재의 고용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WSJ 기사

CNBC: China's chip equipment firms see revenue surge as Beijing seeks semiconductor self-reliance**중국 반도체 장비 기업들, 상반기 매출 급증**

- 오늘 목요일날 공개된 조사에 따르면,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성장시키려는 노력 속에서, 중국 최고의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들의 매출이 올해 상반기 동안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 상하이 소재의 CINNO 조사에 따르면, 중국 반도체 장비 제조 업체들은 올해 상반기에 22억 달러로 추산되는 대략 162억 위안 매출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39%이상 상승한 것이다.
- 스마트폰에서부터 인공위성까지 모든 곳에 사용되는 중요한 부품인 반도체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기술 전쟁에서 핵심사안이었다.
- 중국정부는 자국 내 반도체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외국의 의존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왔다.

CNBC 기사

CNN Business: Peloton shares soar following a partnership with former foe Lululemon**Pelton 주가, Lululemon과의 파트너십 이후 상승**

- 피트니스 기업인 Peloton이 5년간의 글로벌 전략 파트너십 계획을 발표했다. 앞으로 Lululemon은 Mirror 피트니스의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Peloton은 자체 의류 생산을 중단한다. 거래 금액에 대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 다음 달인 10월부터 Lululemon은 Pelton 브랜드의 피트니스 의류를 생산하게 되며, 2년간 Pelton의 자체 의류 생산 노력이 끝난다.
- 이전에 Lululemon은 모조품을 만들어낸다는 이유로 Peloton을 고소하면서, 두 기업은 법적 분쟁을 다뤘었다.

CNN Business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채권금리 상승에 달러화 가치 연중 최고치 경신

달러화 인덱스, 장중 106.84까지 올라 작년 11월 이후 최고 기록

미국에서 고금리 장기화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채권 금리 상승과 맞물려 달러화 가치가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의 가치를 반영한 달러화 인덱스는 이날 오후 장중 106.84까지 올라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미국 국채 금리 상승세가 지속하면서 달러화의 상대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